

광야의 소리 Ⅲ.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1.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로마서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다(십계명). 즉,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시간은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며 한계이다. 하나님은 그 위에 존재하는 시간의 본질이다. 태초에 ‘베레쉬트’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2. 역사, 하나님의 뜻

영어의 ‘히스토리’(history)는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ἱστορί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다’,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어 ἱστορία(historia)는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Περὶ Τὰ Ζῷα ἱστορία》(Peri Ta Zoa Istória, 라틴어 역어: Historia Animalium)에서 사용하였다. _ 위키백과

역사는 시간의 기록이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을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 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역사는 결과의 산물이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성도의 역사관은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이며, 그 답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다.

겔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죽음의 쓴 잔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3.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현상의 질문에 대한 본질의 답을 말한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의미이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앙이 인간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시간으로, 즉 사람의 삶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레디컬’하다. 사원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 방향성이 달라지고 삶의 좌표수준이 새롭게 된다.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화된 신앙에 대한 심판적 선고이다. 생명력 없는 화석화된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셨다. (바리새인들)

강도의 굴혈이 된 성전을 보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언급하셨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을 말한다. 인간은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본질적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역사를 보면 땅의 문제가 창궐하는 시간이 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역사를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것이다. 나무만 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숲을 보면 보인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성경 자체가 ‘역사’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함께 공존한다. 아니, 땅의 시간의 의미를 제공한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 위기의 때 답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답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화석화되었고, 종교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역사에 있다.

4. 흑사병, 그리고 교회

“종교개혁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갈망하고 있던 생존에의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제공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 아래서 신음하던 자들이 기다려온 자유함애의 응답이기도 했다. 도리어 유럽에 몰아닥친 전쟁과 전염병은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신앙심을 흔들여 놓았다.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자유에의 갈망과 근대적인 개인의 소중함을 터득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 개신교회로 진행하게 한 것이다.” _ 기독교일보 김재성 박사

사람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의 타락은, 유럽에 닥친 전쟁과 전염병의 위기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위기의 때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화석화된 종교는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수도원에 격리된 경건이 아니라, 시장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중요시하여 복음을 선포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 강의 저술을 통해서 선행과 공로 사상에 대해 냉철한 비판정신을 발휘하면서, 일상을 중시하는 성경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제시했다.

* **‘흑사병’** - 흑사병은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예이다. 1519년 흑사병이 전 유럽에 창궐했다. 유럽 인구의 삼분의 일이 흑사병으로 인해 죽어갔다. 흑사병의 창궐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개념과 생각’을 변화시켜 버렸다. 기존까지 그들이 옳게 여겨왔던 모든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이 만든 모든 진리가 거짓임을 알게 했다(면죄부).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며 종교개혁의 선두에 선 것이다.

당시 유럽 문명을 주도했던 교회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답을 원했고,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었다. 결국 내놓은 해답은 이전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다. 무엇인가 신을 노하게 했고, 그 벌로 역병이 시작된 것이라 말한 것이다. 오히려 흑사병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잘못된 교리에 대한 강력한 회의를 갖게 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5. ‘스스로 검비하여’

[역대하 7:13-14]

13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 ‘메뚜기’,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다.

(1)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수술대에 자신을 올려 놓아야 한다. 그 자세가 겸손이다. 회개의 영성이 겸손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본질로부터 떨어진 모든 일에 대한 도전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2)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혐오와 분리, 갈등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세워져야 한다. 겸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

(3) 적극적인 대처

흑사병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비위생적 문화로부터 확산된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해석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흑사병이 더 창궐하게 되었다. 문제에 대한 실재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잘못된 교리가 개혁되어 사람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이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한다.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로 땅의 문제를 막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